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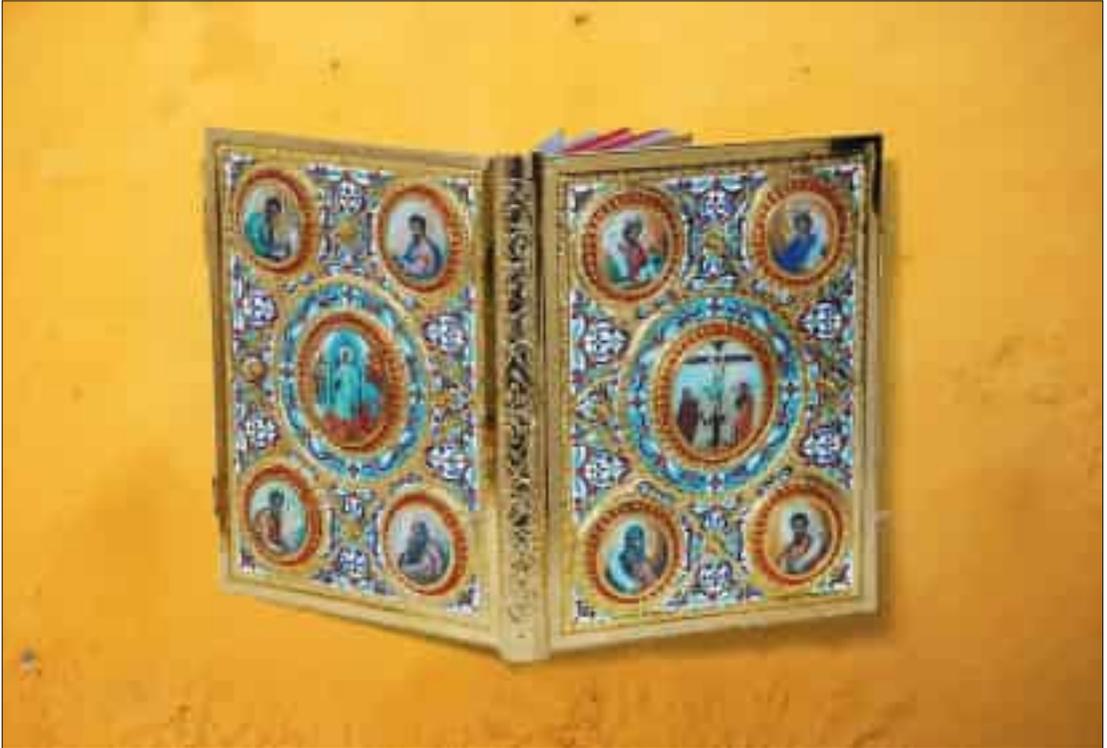


정교회주보

제2510호

2025.02.02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주 예수 그리스도 입당 축일
(제7조 • 조과복음 루가 2,25-33)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입당 축일 제2응송 164
 - 입당 축일 찬양송 164
 - 입당 축일 입당송 164
 - 제7조 부활 찬양송 82
 - 입당 축일 시기송 164
 - 사도경 : 히브리 7,7~17 164
 - 복음경 : 루가 2,22~40 165
 - 성모송 166
 - 영성체성혈송 166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사진 설명

거룩한 복음경

거룩한 복음서는 마태오, 마르코, 루가, 요한에 의한 4 복음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상의 모든 정교회는 일 년 동안 전례 주기에 따라 정해진 구절을 매일 봉독한다.

복음경은 일반적으로 에나멜과 보석으로 장식된 은도금 혹은 금도금 덮개로 되어 있다. 한쪽 면 중앙에는 십자가에 달린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모 마리아, 요한복음 저자가 있는 성화가, 네 모서리에는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모세 예언자들의 성화가 자리하고 있다. 또 다른 면에는 중앙에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 성화와 네 모서리에는 네 명의 복음저자 성화가 자리한다.

성찬예배에서 복음경을 높이 들고 소입당 행렬이 이루어질 때, 주일에는 부활 성화가, 평일에는 십자가 성화가 앞쪽을 향하게 한다. 복음경은 모든 신자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항상 제단의 중앙에 배치된다.

한국 대주교 2025년 사목 지침서

(지난 주에 이어서)

하느님은 우리의 마음을 독차지하길 원하십니다.

이미 구약성경에서 하느님은 자신을 상처받은 연인처럼 묘사하시며 ‘질투’하시고 독점적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너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다른 사랑을 두지 말라.”(신명기 5,9 참조) 신약성경에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도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마태오 10,37-38) 이 말씀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든 것과 모든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게 해줍니다. 어떤 물질적이거나 인간적인 것에도 얽매이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나를 따르려고 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백 배의 상을 받을 것이며,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마태오 19,29)

하느님은 우리가 오직 그분만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독점적으로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당신의 모든 선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내 아들이, 너의 마음을 내게 다오.”(잠언 23,26) 부부 사이에서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줄 때만 진정한 사랑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값진 것에 매여 있다면, 하느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마태오 6,21) 그렇기에 첫째가는 위대한 계명은 우리가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바치고 힘을 다 쏟아”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신명기 6,5). 하느님과 세상에 동시에 온마음을 두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거나 한 편을 존중하고

다른 편을 업신여기게 된다.”(마태오 6,24) 왜냐하면 서로 반대되는 두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마태오 6,33) 즉,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느님께 구하면, 하느님의 약속에 따라 받게 될 것입니다.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너희는 기쁨에 넘칠 것이다.”(요한 16,24) 하느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사랑에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교회의 기도처럼 “우리 자신과 서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느님이신 그리스도께 맡깁시다”라는 고백을 삶에서 실천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만 사람은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 하느님 덕택으로 받은, 또 개인적인 노력으로 얻은 모든 물질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아무 쓸모가 없고, 물질로부터 어떤 기쁨과 즐거움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네 가지 비밀

하느님을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첫 번째 비밀은, 하느님의 사랑의 신비를 인간적으로 가능한 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즉,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크신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도 매일 더욱 깊고 진실하게 하느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의 신비를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한 15,13)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희생을 통해 악마의 폭정과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을 자다.”라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

가에 달려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갈라디아 3,13)

세 번째 비밀은 그리스도와와의 우정의 신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종이 아니라 친구로 여기십니다. “내가 명하는 것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벗이 된다. 이제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벗이라고 부르겠다. 좋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모두 다 알려주었다.”(요한 15,14-15)

네 번째 비밀은 그리스도와와의 공동 상속의 신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당신의 왕국의 공동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자녀가 되면 또한 상속자도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으니 영광도 그와 함께 받을 것이 아닙니까?”(로마 8,17)

이 모든 사실을 알고서도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자신에게 이토록 위대한 은혜를 베푸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완고하고 냉담한 마음을 가진 것입니까?

하느님을 향한 성인들의 사랑

모든 성인들은 하느님을 향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느꼈습니다. 성인들의 사랑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열정적이고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이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닌 하느님과 맺은 인격적인 관계였습니다. 성인들이 평생동안 기울인 노력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깨끗하고 순수하게 유지하여, 항상 하느님과 하나로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교회 신학에서 사용하는 ‘신화(神化)’라는 개념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이그나티오스 성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하느님을 사랑했기에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희생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내게 베풀어주신 모든 것에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시편 116)”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사랑하는 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그분의 고

난의 잔을 마시기를 갈망합니다. 그것은 불멸하는 사랑이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현대의 성인인 성 뽀르피리오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친구이시고, 형제이시며, 모든 선함과 아름다움이십니다. 그분은 전부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친구이시며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친구로 삼았다. 모르겠는가? 우리는 형제다. 나는 지옥을 손에 쥐고 너희를 위협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나와 함께 삶을 기뻐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뽀르피리오스 성인은 여러 번 강조하며 우리 모두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다른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중시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는 전부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갈망의 절정이십니다. 모든 아름다움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전부이십니다.”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은 전부이십니다.

만약 지금까지 우리가 하느님을 마땅히 사랑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매일 더 깊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감미롭고 신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 새해에는 삼위일체 하느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을 목표로 삼읍시다. 하느님을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사랑합니다(마르코 12,30 참조). 그리할 때, 우리는 성 넵타리오스와 같이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나의 영광, 나의 부요함, 나의 자랑입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사랑하고 갈망합니다. 하느님은 가장 감미로운 분이시고 가장 큰 기쁨을 주는 분이십니다. 나는 이를 고백하고 믿으며,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구원의 해 2025년에 하느님의 모든 축복을 우리 삶에서 누릴 것이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르코 12,31)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각자는 “세상의 빛”(마태오 5,14)이요, “세상의 소금”(마태오 5,13)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하나 되도록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 대교구 겨울 수련회 안내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주제로 대교구 겨울 수련회가 열립니다. 2월 4일까지 각 성당 사무실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초, 중, 고등학생 : 2/11(화)-14(금)
(참가비 9만원)
- 신데즈모스(예비신자 포함) : 2/14(금)-16(일)
(참가비 6만원)
- 장소 : 춘천 성 보리스 성당 사회복지관

■ 영원히 기억하시리이다. 알바니아 대주교 안식

지난 1월 25일(토), 알바니아의 아나스타시우스 대주교님께서 95세로 안식하셨습니다. 온 생애를 선교활동에 바친 고인은 소티리오스 대주교님과 대학 시절부터 오랜 친구였고, 한때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 선교를 도와주시기도 했습니다. 대주교님의 사랑과 업적에 우리 모두 감사의 마음을 느낍니다. 하느님 나라에서 평안히 안식하시길 기원하며, 지난 주일(26일) 성찬예배 후에는 지역 성당과 가평 수도원에서 추도식을 드렸습니다.



■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인천 성당 사목 방문

지난 주일(26일), 암브로시오스 대주교께서 인천 성 바울로 성당을 방문하여 다니엘 대신부와 조과, 성찬예배, 알바니아 대주교 추도식을 거행했습니다. 사랑의 오찬 후에는 신데즈모스 청년들 및 청년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 아토스 성산 순례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청년 4명은 임종훈 안토니오스 신부의 인도로 1월 9일부터 16일까지 아토스 성산을 방문했습니다. 이비론 수도원과 그레고리우 수도원에서 일주일간 머무르면서 수도원 생활을 체험하고, 대 바실리오스, 니사의 그레고리오스, 마크리나, 아레오파고스의 디오니시오스, 포티니 등 성인들의 성해에 경배하고, 비잔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성화와 성물을 관람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 2025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회

전 세계적으로 1월 18일-25일은 그리스도인 일치를 위한 기도주간입니다. 이를 맞아 지난 23일(목) 저녁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회가 ‘신앙과 직제 협의회’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영성의 샘터

완전한 사랑

사막의 스승 안토니오스 대수도자는 제자들에게 “나는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곤 했다.

하느님에 대한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낸다.”(요한1서 4,18 참조)